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3호 【루게 제22995호】주제99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 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대각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구바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대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2010년 2월 3일

아바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팔레스티나민족 당국 수반,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풀달라 싸이냐온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짜편 와린파라썩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1일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마호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11일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 관계 일군들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유엔사무총장이 구두친서와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유엔사무총장이 구두친서와 선물을 보내어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유엔사무총장특사인 비. 린 파스코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이 11일

본사기자

조선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빛을 뿌릴 것이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이란국제레전도협회, 기네 장장 종합대학과 주제문학사상연구회, 만다미트 라 모에 프레스 출판사에서 강연회, 독보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건전시회장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영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란국제레전도협회 부회장은 《백제산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의 탄생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어려서부터 빨레 산신전법을 터득하시며 희세의 명장으로 성장하시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영도자시야말로 백두산형의 장군이며 그 종합한 모든 일체질적특성이 발발하면 김일성주석대리이심을 현실을 통해 더욱 절감하고있다. 김정일영도자께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조선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될것이다.
기네 장장종합대학 주제사상연구소 부회장은 《김정일, 독특한 창조방식》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창조방식에서 특징적인것은 모든것을 현대성이 도달한 최고의 높이에서 창조하고 건설해나가는 것이다. 그의 창조방식은 또한 모든 분야를 비약적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가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김정일각하의 창조방식이야말로 새 세기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창조방식이다.
기네 주제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은 독보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특징은 우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이어가는 철저한 계승성으로 일관되어 있는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로 정식화하시고 그 지위를 뚜렷이 밝히셨으며 주제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추구하시었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어느 것이나 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으로 판명되어있다.
특징은 또한 새로운 발견과 혁신으로 일관된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이라는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그 어떤 문제든지 기성리론이나 공식,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신다.
특징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시대성이 뚜렷한 사상리론활동이라는것이다.
만나미트 라 모에 프레스출판사 사장은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영도됨에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년이 되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것이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민주공과 건설사에서는 강연회가, 체코프 디알로그신문에서는 토론회가, 에티오피아 물공사설계 및 감독기업소에서 영화감상회가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민주공과 건설한 루뎀바주의 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총정의 맹세 2.16 경축 백두산 밀영결의대회 진행

【삼지연 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11일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진행되었다.
백두산밀영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시는 최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사상과 령도의 거장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과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환희로 새겨진 승려 반지교이었다.
밀영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를 드리는 대행기구들이 떠있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드리는 대행기구들이 떠있었다.
최태복동지, 김경각동지, 김기남동지, 김일철동지와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618 건설돌격대원들, 량강도 내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영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맹세가 담긴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은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궁지와 영예를 안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로숙하고 세련된 명도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에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모두의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안으시고 전설적백제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음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수평복, 장군복을 받아안고 자주와 선군의 한길로 즐기게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위력떨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기적전변들이 이루어질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창건 65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전제 일군들과 당원들이 공동사실과 김일성동지께서 호소하신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우리 당을 영연의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정당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로 위력떨치는 선군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의 사업을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장군님으로 해나가며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년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새로운 대고조전진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 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경각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운이였으며 김일성조선의 끝없는 흥성번영과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역사적사건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우리 식의 전법과 강력한 공격 및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로 내세워주시고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인민군인들은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육관결사대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일봉의 하늘가에 2월의 불보라가 러져오른다. 본사기자 장정민 찍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65돐을 조국청사에

백두산총대바람으로 10월의 승리를!

천만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대한 호소가 울렸다.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이것은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대문으로 들어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드립없는 의지의 분출이다.
 조국은 무엇을 믿고 또다시 공격전에 나섰으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여 모든 리상과 포부가 실현될 휘황찬란한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는 것인가.
 지난 1월 천지를 진동하며 세상을 들뜨게 하였던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관과 구본대의 강력한 포학력과 조선인민군 특제공군합동훈련의 드센 불소나기가 퇴적마냥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여도 막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선군을 떠나서는 결코 새로운 혁명적대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 ...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바로 이때문이었다. 오만한 침략의 무리가 살판치는 오늘 선군이 없으면 조국도 없기에, 군력이 약하면 경제건설도 인민생활향상도 빈 구로밖에 달리될수 없기에 우리 장군님 기어이 번영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올해의 백두에도 군위판크사단을 찾으신것이다.
 우리 장군님처럼 평화를 간절히 념원하고 인민의 행복을 바라시는 위인은 없다.

오랜 세월 외세의 발굽에 시달리며 수난과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우리 민족, 제국주의와의 항적적인 대결속에서 남보다 몇십배배의 피땀을 바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건설해나가는 우리 조국,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찬란한 미래에 이끌려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오늘도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이 되여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는 「붉은 하늘」, 「오목배파」라는 말이 더 그이의 가슴에 자나깨나 불타오르는 것도 평화로운 하늘아래에서 인민의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실 강렬한 열망이다.
 총대! 오직 무적의 총대우에 영원한 평화의 하늘이 있고 오늘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이 되여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는 「붉은 하늘」, 「오목배파」라는 말이 더 그이의 가슴에 자나깨나 불타오르는 것도 평화로운 하늘아래에서 인민의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실 강렬한 열망이다.
 총대! 오직 무적의 총대우에 영원한 평화의 하늘이 있고 오늘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이 되여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었다.

역사에는 인민을 위하였다는 정치가들이 많다.
 하지만 정애하는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골로 지니시고 순간순간 고결한 사랑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는 절세의 위인, 인민의 어머니를 력사는 알지 못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정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렬해지는 위대한 어머니사랑이다.
 위대한 수령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평양밀가루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가 뜨거운 추억속에 잊지 못하는 감동있는 이야기가 있다.
 공장을 처음 일떠세울 때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긴장한 건설과 관련하여 돈이 많이 드는 한 공정만은 타산이 맞지 않는것으로 여기고 빼놓았었다.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반적인 기술개발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최단기간에 실현하는것이 라고 가르쳐주셨었다.
 그러시는데 평양밀가루공공장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식료공장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몸이 크게 설쳐하고 완강히 내미는 동시에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 건설 기업소들에서 이 사업을 주 인다운 팀장에서 책임적으로 도와올때 대한 응징친 초지도 취해주셨었다.
 여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CNC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어머니수령님의 손길이 어려웠는데 평양밀가루공공장을 보다 최단기간에 넘어서기 위하여는 그들의 승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인민을 위한 수지타산

수지타산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적의 총대에 따발려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합니다.」
 력사에 길이 빛날 노복아리였다.
 우리 서울류경수제 105명 크사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아프리카동맹 의장과 여러 나라 대통령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리 롭 웨

아 레 네

아프리카동맹 의장
말라위공화국 대통령
빙구와 무라리카카하

그리스공화국 대통령
까를로스 파블리아스카하

나는 전체 아프리카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제 1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에서 당신이 아프리카동맹 의장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 수뇌자회의가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적통합을 실현하며 정보 및 통신기술부문을 비롯한 경제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이 기회에 아프리카동맹과 그 성원국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바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99 (2010)년 2월 8일 평 양

나는 당신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아프리카동맹이 2010년을 「아프리카의 평화와 인권의 해」로 선포한 정신에 맞게 성원국들의 이익과 충돌을 방지하고 단결과 협조를 도모하며 대륙의 통합과 평화, 경제적인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각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99 (2010)년 2월 10일 평 양

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으로 3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이란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유엔 부사무총장 일행을 만났다



【평양 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온 유엔 부사무총장사무인 비. 린 파스코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 친어머니사랑으로 이어지는 전선길 ||

비가 오기 전에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하던 주제 94 (2005)년 4월 초 어느날 정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었다.
 아침일찍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신 그이를 비유해 된 지휘관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전 사관장을 몸소 부르시었다.
 정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관장을 하다가 후방일군이던 동무를 만나 반갑다고 하시면서 동무가 지난 기간 구본대의 물질생 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였다라고, 앞으로 일을 계속 잘하려고 고부해주시었다.

그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정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실 오후에 오려고 했는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므로 하기에 계획을 바꾸어 아침일찍 왔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었다.

그로서는 비가 오기 전에 사관장을 불러서 사관장들을 데리고 가서 사관장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므로 하기에 계획을 바꾸어 아침일찍 왔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었다.

그들이 오라니 우리가 이리까지 오려고 했는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므로 하기에 계획을 바꾸어 아침일찍 왔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었다.

그들이 오라니 우리가 이리까지 오려고 했는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므로 하기에 계획을 바꾸어 아침일찍 왔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에게 있어서 정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최상의 영광이고 행복인데 비마 알게 되지만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뒤로 미루시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신 정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

우리는 장군님에게 있어서 정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최상의 영광이고 행복인데 비마 알게 되지만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뒤로 미루시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신 정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

안약군 오국리당위원회에서

안약군 오국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학습을 잘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을 공동구호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틈틈이 공동구호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연구반포모임, 해설담화 등을 참신하게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이 공동구호를 깊이 학습하고 대

특장청년반급

특장청년반급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학습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공동구호를 실은 담보를 받은 즉시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독보를 조직하도록 하고 공동구호학습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일군들이 작업

선군시대는 영웅시대

작사 리지성, 작곡 황진영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1. 조국은 우리를 부른다 나서라 천만의 심장이
원대한 포부와 리상이 꽃피는 거창한 시대다
거세찬 파도의 정열로 떨치라 위훈을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2. 조국은 묻는다 기적과 혁신의 주인공 누구냐
애국에 몸바쳐 돌격로 열어진 기수가 누구냐
행복의 뿌리될 의지로 구슬땀 뿌리라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3. 장군님 선군의 빛발로 펼치신 빛나는 이 시대
강성대국의 만세를 울리며 백승을 떨친다
내달는 폭풍의 기세로 달려라 미래로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며

김형직군 김형직중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속에 굳은 배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하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자면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를 통한 사상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모든 교원들이 굳은 배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교양자료집을 만들게 하는 한편 보여주기사업과 교수경연 등을 잘 조직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교수교

양에 실감있게 리용할수 있는 참신한 교수방법들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배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잘 알고 교수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기 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주요계기마다 포령 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군인의 사적지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를 의의있게 잘 조직하고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감상문발표모임과 결의모임, 우등보모임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고 매일의 삶이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해나갈 불라는 결의를 가다듬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학교청년동맹조직에서는 학생들이 사적지들을 찾는 답사자들에게 굳은 배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실감있게 해설해주는 사업도 잘하고있다. 이곳 학생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령혁명사적지 관리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 있다. 이 과정에 집에서 정성껏 자른 배두산위인 사적지에 정히 옮겨심는 박성국, 김일광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발휘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학생대렬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은남**

2.16경축 성, 중앙기관 예술소조종합공연

2.16경축 성, 중앙기관 예술소조종합공연이 11일 인민문화공전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국가간부들과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대 근로자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민족사적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온 장면에 차넘치는 가운데 공연들은 설화와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 설화와 합창 《흰눈덮인 고향집》으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혼성 중창 《백두산의 2월을 사랑하세네》, 시 이야기 《아버지장군님 더 잘 모시리》 등의 종목들에서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민족적대경사의 날을 뜻깊게 경축하는 끝없는 환희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찬란한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 이야기와 노래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변이 나는 내 나라》, 이야기와 노래 《축배를 들자》를 비롯한 종목들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불멸불후의 영도자 김정일성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며 비약의 폭풍시대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정을 생동하게 형상한 이야기와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혼성 소합창 《장군님 꽃피우신 선군의 리키리오》, 대화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합창 《그이의 리상》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

고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역센 기상과 충동기, 가속기가 되어 오늘의 총공세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할 정부원들의 드높은 열의가 맥박치는 합창 《들라라라 최첨단을》, 이야기와 노래 《봉년비로 어서 보내세》, 남성중창 《전선에서 만나자》를 비롯한 종목들도 관람자들

을 적동시켰다. 공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결사관철해나갈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사상정신적동모와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릴때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축분위기로 흥성이는 혁명의 수도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경축분위기로 흥성이고있다. 수도의 거리와 마을, 일리마다에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공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거리와 마을을 더 밝고 환하게 꾸리고 명절분위기를 더 높여 흥성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부원들, 시안의 각급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담아 키우며 제14차 김정일화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그리고 성, 중앙기관들과 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예술소조종합공연과 체육유희오락경기가 벌어져 흥성이고있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2월의 명절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대고조선속도를 더욱 높여 날에날마다 혁신적성파를 이룩하고있다.

새해 첫날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강동지구관할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전연합기업소, 동명야외 전력발전소와 김정일평양제사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총공세의 불길소리가 2월의 명절을 높은 생산성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평양시식료련합기업소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

에게 더 많은 식료품을 공급할 목표에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육류판과 평양면옥, 편모판을 비롯한 사회교양물에서는 특색있는 여러가지 민족음식들을 봉사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기 위한 준비를 잘하고있다.

력겨운수부문에서도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의 편의를 더 잘 보강해줄수 있게 전차와 버스들의 정비를 빈틈없이 하고있다.

평양시에서는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수도의 거리들에 꽃장식, 불장식을 이채롭게 하여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기 위한 준비사업도 예견성있게 잘 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측하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측하단이 11일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측하단성원들은 시대와 혁

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 않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동상

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측하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유엔부사무총장일행

여러곳 참관



유엔부사무총장일행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재일본조선인측하단 도착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리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측하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도식 재일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군들이 측하단을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교실〉 문학상》

학생 청소년들에게 수여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교실》문학상 수여식이 11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있었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능률과 회상을 마음껏 꽃피우며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해가고있는 각급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문학

작품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중앙중학교 김충식, 평양제4소학교 김원희, 신의주의국어학원 로영경, 평양시외거리중학교 류미애를 비롯한 400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실》문학상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었다. 이들이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한 시조 《전선길에 등이

단군조선시기의 유적, 유물 발굴

평양시 승주구역 리천리일대에서 최근에 단군조선시기의 유적, 유물이 발굴되고있다. 이 일대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석기시대 집결지로서 유물과 농기구와 가마터, 단군조선시기의 대규모부러터가 발굴되어 력사학자들의 관심을 모은 곳이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유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리천리유적 제2지구의 22호집자리로부터 북쪽으로 1.2m 떨어진 곳에서 평면생김새가 장방형인 집자리를 발굴하였다. 집자리의 남북 길이는 10.6~10.8m, 동서너비는 6.15~6.3m이며 바닥은 평탄하고 편평하다. 집자리에서는 작업대로 리용한 모루로 인정되는 각이한 크기의 넓적한



성실한 교육자

장연군 세마중학교 교원 리영희동무는 《10월8일모범교수자》이며 《세교수방법등록증》 소유자이다. 지난 20년동안 그가 탐구창안한 세교수방법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들은 수없이 많다.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정보산업시대는 교육실현에서 교원들로 하여금 부단히 새 교수방법을 탐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언제나 《성격과 전형》에 대한 교육내용을 취급할 때였다. 《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리영희동무는 편이여 제기되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식효과있는 교수방법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일행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와 일행이 11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를 방문하였다. 조일대표와 지부성원들이 위원장일행을 맞이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였다. 조일대표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남조선각지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분출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이 위대한 선군영도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남조선인민들이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소식을 통보하였다.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위원장은 앞으로도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한 반제민전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손님들은 우리 민족을 조국통일과 번영의 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공로를 보여주자는 특화된 집회를 시정하였다.

이날 조선과의 친선협회 명의로 된 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반공화국대결운동에 미쳐남는 남조선당국의 죄행을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무모한 북침전쟁정전과 동족대결운동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쳐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가고 있는 반제민전과 남조선인민들에게 굳은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31돐에 즈음하여 이란혁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31돐에 즈음하여 머르메자 머르데언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릉남부역상, 금석용외무성 부장, 정철용원인 유공업성 부장, 김진평 대외문

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문성모 외교담당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세제대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마호무드 아호마디네자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측하단 도착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영일부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측하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측하단을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 법적책임

최근 도이쾰란드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배상금지불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6월까지 로제야를 비롯한 세계 10여개 나라의 나치스강제로동피해자 167만여명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도이쾰란드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배상금지불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던 것은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최근년간 도이쾰란드를 비롯하여 불미스러운 역사를 가지고있는 여러 나라들이 과거청산에서 성실성을 보이고 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말려들었던 나라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하거나 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남을 위해서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하십니다.》

일본은 죄값을 과거를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그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죄값은 과거에 대하여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그러한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있다.

지난날 제1차 세계 대전이 우리 인민에게 지른 일제의 범죄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범죄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을 강제연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일제는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

르는 수많은 조선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전락시켜 성노예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대부분이 낮고 물결은 이국땅에 묻혔거나 살아남은 여성들의 다수도 정신도덕적수치와 육체적고통으로 하여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가한것은 엄중한 전쟁범죄, 특대형의 반인륜적 범죄이다. 오죽하면 카나다, 필리핀 등 여러 나라 국회를 지어 미국회에 서까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가 채택되었는가.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국가적, 법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우선 일본정부가 《위안부》들에 대한 성폭행을 조직하고 지령한 가해자이기때문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군령을 세우고 군이 《출성》하도록 하면서 《위안부》들을 보내주고 《위안소》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치정권시대 기록부》이라는 반인륜적악법을 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범죄행위를 합법화, 제도화하였다. 일본군부대는 태평양전쟁이 벌여 군에 대한 헌지주인들의 반감과 성병을 막으며 군사비밀을 엄수한다는 구실밑에 여러 방편으로

과 과건군들에 《위안소》들을 설치운영하려는 지시를 내리려보았다.

사실들은 일본군 《위안부》범죄행위의 조직자도 집행자도 일본정부라는것을 말해준다.

《위안부》문제는 일본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이다.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과거죄행

을 청산하는 법률적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일제패망후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까지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해결책도 세우지 않고있다. 그들은 《센트럴아시안강화조약》 등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적책임은, 법적인 배상문제도 다 해결된 것처럼 그릇된 여론을 내뿜고있다. 이것은 역사적사실에 대한 과묵치한 외무행위이다.

국제조약이 그 제약조건만 구속력을 가진다는것은 국제법상 원칙이다.

우리 공화국은 《센트럴아시안강화조약》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그자체를 비법적인것으로 확언하고 무효로 선언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센트럴아시안강화조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일본이 그것을 근거로 성노예범죄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일본정부가 《위안부》죄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려 하고있는것은 《민간기금》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민간기금》계획은 일본정부가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생존자들에게 얼마간씩 나누어준다는것이다. 이 방식에서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부금》이라는 민간기구로 되어있다. 결국 일본이 《민간기금》을 내는 목적은 《위안부》문제를 대한 정부책임임을 외면하고 무엇을 하는듯이 뉘설을 피우자는 데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안부》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과 배상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보나바와 같이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도이쾰란드와는 너무도

구분별한 전쟁책임을 규탄

수리아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가 3일 한 외교석상에서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전쟁책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모든 사실은 이스라엘이 평화로 바꾸지 않았고있으며 중동지역을 새로운 전쟁에 몰아넣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라크에 대해 "우리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때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미 지난 성과에 토대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3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우주과학기술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년간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우주를 정복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

파키스탄국회의 의장이 3일 이란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서방이 핵문제를 놓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란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파키스탄은 이란에 대한 어떤 경제도 반대하며 이란이 핵에너지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수 있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손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로전》에 미처들어가는 미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작전에 의해 계속 늘어나고있다.

1일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미군병사 1명이 또 희생되어 되었다.

올해 1월 한달동안만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미군수는 29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배나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이슬람교세기와 미국관계

어만을 사용하고있다고, 우리가 아직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발전전망에 대해 이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극대적이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있다고 드러내놓고 있고있다. 이란은 자기 나라의 핵무기개발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평화적행위들은 미국의 불법적인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진정히 고수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이란에서 78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억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손실액은 9600억US\$에 달하였다.

자 연 재 해

유엔은 1월 28일 조사자료로 발표하여 2009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3852건의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다. 그로 인해 78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억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손실액은 9600억US\$에 달하였다.

이슬람교세기와 미국관계

어만을 사용하고있다고, 우리가 아직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발전전망에 대해 이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극대적이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있다고 드러내놓고 있고있다. 이란은 자기 나라의 핵무기개발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평화적행위들은 미국의 불법적인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진정히 고수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이란에서 78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억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손실액은 9600억US\$에 달하였다.

자 연 재 해

유엔은 1월 28일 조사자료로 발표하여 2009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3852건의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다. 그로 인해 78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억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손실액은 9600억US\$에 달하였다.

이슬람교세기와 미국관계

어만을 사용하고있다고, 우리가 아직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발전전망에 대해 이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극대적이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있다고 드러내놓고 있고있다. 이란은 자기 나라의 핵무기개발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평화적행위들은 미국의 불법적인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진정히 고수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새해 공동사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소개

당보, 근보, 청년보의 새해 공동사설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소개하였다.

로제야신문 《빠뜨리오트》 제3호는 주재사상사진 등을 실고 《결정적전환의 해》라는 제목으로 공동사설전문을 게재하였다.

로제야자유민주당은 1월 19일 인터넷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라는 표제어가 등장기념탑사설을 실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인민은 2010년에 의의있는 사변들과 련관된 기념일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선해방 65돐이다. 조선은 지난해의 성과를 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언에는 조선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밝혀져있다.

조선의 통일은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로제야자유민주당은 새해 2010년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에집트잡지 《우리야리》 1월 17일부와 미국신문 《밀러리트》 2월 1일부터 새해공동사설의 주요내용을 실었다.

조선의 주요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제야자유민주당은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2010년에 맞이하게 될 기념일들가운데서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체코, 폴란드, 모라바, 슬로바키아로 조영회가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시종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는 정책목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캐드우 올려세우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신뢰를 조성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교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 가도 신뢰분위기가 조성될수 없으며 회담자세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평화협정 체결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차 굴 건설

이란에서 구도의 복부와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차굴을 새로 건설하여 최근에 개통하였다. 차굴의 길이는 2km 이상에 달한다.

이 차굴은 수도의 교통조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한다.

농업발전조치

캄보자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2013년까지 관개면적을 부집면적의 70%로 확장하게 된다. 현재 나라의 관개면적은 4.39%에 이르렀다.



이란에서 차굴 개통

신형 독감 예방

마르세에서 A(H1N1)형 독감바이러스가 계속 퍼져 인명피해가 계속되고있다. 3일 이 나라 보건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신

형 독감에 의해 1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3만 300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유엔은 1월 28일 조사자료로 발표하여 2009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3852건의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다. 그로 인해 78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억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손실액은 9600억US\$에 달하였다.

자연 재 해

유엔은 1월 28일 조사자료로 발표하여 2009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3852건의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다. 그로 인해 78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억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손실액은 9600억US\$에 달하였다.

중국 미국의 비난과 압력을 배격

중국의 고부 대변인이 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방성이 《4개년 국방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을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국방건설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여론을 오도하는것으로 확언하였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다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국방건설을 객관적으로 공정한

대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4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정권자가 인민적합률때문에 미국이 무언에 손해를 보았고있다

비단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기도를 드러내보인 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중국은 인민계류동환물 제도를 안정하게 실시하고있다고 밝히고 인민계류물이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내게 한 주요원인으로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미사이의 무역

역, 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냉정적으로 대하고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관여하는 미국회사들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의 해당 회사들이 중국의 견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참가하기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단 평 자가 당 착 의 공 약

최근 이스라엘이 수리아와의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모순되는 소리를 하여 사람들의 말밭에 오르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상과 위무상이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데서 이스라엘은 수리아와의 평화를 원하지만 《임의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반격을 가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아말로 자가당착의 공약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럼 몰런데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평화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표방하면서도 그 누구의 《임의의 위협》에도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울려대는것이 도대체 리치에 맞는 소리인가.

그들의 수작을 꺾어쩌면 수리아와의 관계에서 갈라나수까지도 똥통이 다같이 내들것이다. 이 이스라엘적공약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하나의 결체이고 기본은 후자이다. 역시 평토평장에 환장이 된 이스라엘나

엘다나 행동방식이다.

사실 위협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 가해자는 이스라엘이고 피해자는 수리아이다. 단적설레로 몇해전에 이스라엘이 때려부렸던 수리아와도 수리아의 한 시설을 폭탄으로 무참히 파괴한 사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평토평장을 업으로 삼고있는 중동평화의 《안》인 이스라엘이 수리아의 자주권과 평토평화를 항시적으로 침해, 위협하고있었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세상이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가당착의 공약으로 서투르게 저들을 평화의 면사포로 포장하고 단장을 보며 하는것 같은데 어찌도 없었다. 까마귀 열백만 미역을 잡아도 회여지지 않듯이 이스라엘의 강도적본색은 갈데 없다.

최 성 국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신형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1만 4 14.0여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휩쓸고있는 신형독감은 시간의 흐름수록 인간의 생명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후파를 미치고있다.

그러나 신형독감의 전파속도에 못지 않게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전염병이던 《전염병》이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환거리로 되고있는 상품철취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행위로 매일 3 500만US\$여치의 손실을 보고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상품노단건수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상품철취행위는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나라들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한 소매상업연구로 셀러는 상품철취행위로 1년 동안에 잃은 손실액이 미국에서는 4 60억 US\$, 유럽에서는 4 40억 US\$,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1 79억US\$에 달한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별로 놀랄 일이 아

니다.

수시로 사람들의 영악을 자아내는 피비린 총기류범죄사건이 벌어지고 절도, 강도, 사기협박 등 온갖 사범죄이 범람하는것이 바로 부정부패한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이다.

수목되는것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염병》처럼 되어버린 상품철취행위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있는 점이다.

지난 시기 상품철취행위는 많은 경우 《전문가》들에 의해 저지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시기에는 그들만이 아닌 비 《전문가》들 다시말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상품철취의 길에 저지되어 뛰어들고있다.

이것은 돈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결정하고 돈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수 없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품철취행위의 피해자들이 결코 경영자국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대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

영국에서는 《외부》도적들이 상품을 훔치는 평균액수가 건당 800여 달러인데 반면에 《내부》도적들은 1 600여 달러를 훔쳐가고있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

영국에서는 《외부》도적들이 상품을 훔치는 평균액수가 건당 800여 달러인데 반면에 《내부》도적들은 1 600여 달러를 훔쳐가고있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

영국에서는 《외부》도적들이 상품을 훔치는 평균액수가 건당 800여 달러인데 반면에 《내부》도적들은 1 600여 달러를 훔쳐가고있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별로 놀랄 일이 아

니다.

수시로 사람들의 영악을 자아내는 피비린 총기류범죄사건이 벌어지고 절도, 강도, 사기협박 등 온갖 사범죄이 범람하는것이 바로 부정부패한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이다.

수목되는것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염병》처럼 되어버린 상품철취행위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있는 점이다.

지난 시기 상품철취행위는 많은 경우 《전문가》들에 의해 저지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시기에는 그들만이 아닌 비 《전문가》들 다시말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상품철취의 길에 저지되어 뛰어들고있다.

이것은 돈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결정하고 돈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수 없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품철취행위의 피해자들이 결코 경영자국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대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

영국에서는 《외부》도적들이 상품을 훔치는 평균액수가 건당 800여 달러인데 반면에 《내부》도적들은 1 600여 달러를 훔쳐가고있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

영국에서는 《외부》도적들이 상품을 훔치는 평균액수가 건당 800여 달러인데 반면에 《내부》도적들은 1 600여 달러를 훔쳐가고있다.

미국에서는 상품철취현상이 평균 3 76US\$여치의 상품을 총지고있다.